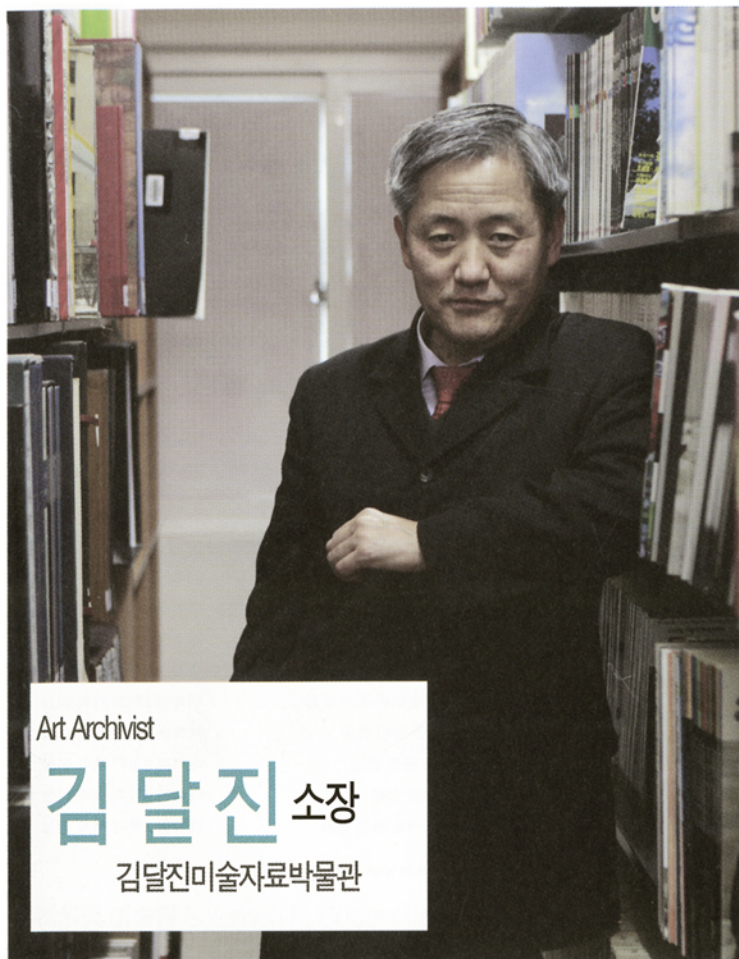




Art Archivist

김달진 소장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Q 아키비스트란 매우 생소한 이름이다.

A 최근 미술쪽 직업이 전문화되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 에듀케이터, 미술품 수복 보존 전문가들도 있을테고, 그리고 영어로 아키비스트archivist라는 미술 자료를 취급하는 직종도 생겨났습니다. 이 아키비스트라는 말을 미술계에서 쓰는 것은 최근 몇년 사이인것 같아요, 더러 후배들 명함을 받아보면 아키비스트라는 직함이 있더라구요, 백남준아트센터에도 아키비스트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었고, 소마미술관에도 아키비스트가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사미술공간의 직원 중에도 아키비스트가 있었어요.

아키비스트를 얘기하면서 아카이브archive에 대한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카이브는 기록을 보존하는 어떤기관을 말하죠. 아키비스트는 그곳에서 일하는 기록이나 문서 보관 담당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최초의 아카이브는 지금은 용인으로 옮겨간 한국미술기록보존소였죠. 그곳에서 일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미술 아키비스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도서관에서 일을 하던 미술주제 전문사서였죠. 기록을 관리해서 남겨주는 역할. 우리미술계에서도 이제는 점차 전문영역 안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기록정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 같고 명지대학원에서는 과학기록정보대학원까지 생겨났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기록관련학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아키비스트가 되었나?

A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료를 모으는 재미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큰 전시가 있다고해도 찾아가기 힘들었고, 지금처럼 전집이나 화집이 나오지 않던 시기였어요(70년대). 그 당시에는 '영원', '주부생활' 같은 여성지에, 화보로 '이달의 명화' 이렇게 나왔던 것을 뜯어 모았던 것에서 시작된거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72 년도에 경북공 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60 년 전을 본 후에 서양의 명화만 모을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료도 모아야겠다는 자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미술 자료를 모으는 일을 시작한 거죠.

이 일은 새로운 직업이죠. 몇년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 직업능력개발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곳에서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직업모형을 만든 사람들을 조사했었는데, 저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전에 없었던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을 만든 사람으로 취재해갔어요. 중고등학교때부터 취미로 시작해왔던 것이 하나의 사회적 직업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신문포가리나 모아서 밥먹고 살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제 자신 역시 취미로는 미술자료를 수집하는게 좋은데, 이게 과연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미술계가 발전하면서 자료,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동안은 사람들이 나와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용할 줄 알았지만, 수집을 해서 남겨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은 적었던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의 사나이' 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매주 금요일에 직접 전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죠. 이것이 자기만족으로 끝났으면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못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공모전에대한 문제점, 문서의 오류/오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미술이 어떻게 해외에 진출을 했나, 외국의 미술작품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시가 되었나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를 조사 정리해서 분석했던 글을 쓰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Q 미술 아키비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A 만약 미술전공자가 아니라면 미술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할것입니다. 미술의 특수영역, 장르 구별을 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작은 서예의 한 부분인데 어느 곳에서는 전작을 서예가 아닌 조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장르를 분류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깊은 철학을 요하는 것입니다.

Q 왜 아키비스트가 중요한가?

A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1996 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상수상작가전이란 전시가 있었습니다. 대상수상작가전은 가장 권위가 있다는 3 대 공모전의 대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그 작가의 작품이 현재에는 어떻게 변했나를 알아보는 전시였어요. 김훈이라는 중앙미술대전에서 한국화로 대상을 받은 작가의 대상수상작품을 보여주고, 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보여줘야하는데,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이지만 나이가 42세나 더 많은 서양화가 김훈의 작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전시도록에도 실리고 전시 개막후 3 일간이나 엉뚱한 김훈의 작품이 걸려있던거예요. 그렇게 미술관이 벌컥 뒤집어 진 일이 있었죠.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한다면 그 전시에 대한 의미, 작가와의 소통이 있었을텐데,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코메디 같은 일들이 벌어진거죠.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거죠. 자료는 결국 역사거든요. 그런것들이 잘못되었을때, 커다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역사를 잘못 전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미술 사이트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쉽게 남의 자료를 베껴서 그대로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본 자체가 이미 오래되서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자기의 노력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들을 막아야하는거예요.

결국 자료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 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키비스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예요. 한때 우리 역사가 기록에 강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기록을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국현대미술이 제대로 서술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전시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계의 기초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한국미술을 외국에 소개한다든지, 현대미술의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